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남,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14-18일 재난·교통·급수공급 등 7개 대책반 편성 공룡박물관·땅끝 모노레일 등 주요 관광지 정상 운영

해남군은 추석연휴 기간 군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수립,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종합상황실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편사항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총괄반을 비롯해 재난, 안전·교통, 청소, 산불,

보건, 급수공급, 가축질병 등 7개 대책반으로 편성된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대책을 면밀히 추진, 추석연휴 동안 재난안전상황실 및 의료계 집단행동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군 보건소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명절기간 의료기관·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는 물론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전파에 대비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일반 진료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해남종합병원과 해남우리종합병원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48개소 및 휴일지킴이 약국 28개소를 지정해 일자별 근무를 통해 의료 불편을 최소화한다.

해남군 보건소는 16-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52개소에서 판매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 진료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남군 누리집(www.haenam.go.kr)과 소통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0) 응급의료포털사이트(www.e-gen.or.kr) 또는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추석 명절 연휴가 길어지면서

귀성객 및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남공룡박물관을 비롯해 우수영 관광지 및 땅끝 모노레일 및 전망대, 두륜미로파크 등 주요 관광지는 쉬는 날 없이 운영된다.

다만, 황토나라테마촌은 연휴기간 중 운영하지 않으며, 고산 윤선도 유적지는 16일, 땅끝오도캠핑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휴관한다.

우수영 관광지와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서는 연휴기간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마당이 마련된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남공룡박물관은 16-18일 무료입장을 실시

하며, 풍선쇼와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군청사옥의 설치장소를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와 우수영항, 땅끝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명절연휴 해남군수는 “올해는 연휴기간이 길고, 영농현장이 바쁜 시기인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군민들과 귀성객들도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즐거운 명절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달콤, 영양 만점”...영암고구마 라떼 나온다

郡-바나프레시, 협약 농특산물 신메뉴 개발

영암 농특산물이 대한민국의 입맛을 사로잡는 디저트 메뉴로 출시됐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카페 프랜차이즈 바나프레시와 군청에서 영암 농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바나프레시는 지난 9일부터 가을 신메뉴 ‘영암고구마 라떼’를 출시했고, 영암 황토고구마를 1년에 30t 구입하기로 했다.

바나프레시는 계절 한정 메뉴였던 이 제품을 앞으로 상시 메뉴로 판매



영암군은 최근 카페 프랜차이즈 바나프레시와 군청에서 영암 농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암군 제공)

한다는 방침이다.

나이가 100여개의 직영점과 40여개의 가맹점, 온·오프라인 미디어로 영암고구마 라떼 판매·홍보에 나선다.

동시에 고구마 라떼를 시작으로 영암 농특산물을 재료로 다양한 디저트를 개발하고, 신메뉴 출시 때 영암군의 로고와 ‘남생이’, ‘달도끼’, ‘산이’ 캐릭터 등을 활용한 프로모션과 콜라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바나프레시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약

속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의 우수 농특산물이 다양한 디저트의 원재료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바나프레시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 추진

매일 첫째 주 금요일 ‘종이팩·폐전지 교환의 날’ 운영

신안군은 10일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일 첫째 주 금요일에는 ‘종이팩·폐전지 교환의 날’이 운영된다. 군민들은 종이팩과 폐전지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제로 웨이스트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16회 자원순환의 날(9월6일)’과 연계해 지난 6일부터 시작됐으며 원재료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종이팩과 수은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전지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로 웨이스트 물품은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방지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품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생활 주변의 소소한 실천으로 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들이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순환경제도시, 플라스틱 제로 2050’ 추진 선포식, ‘플라스틱 제로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양훈기 기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모여라”

영광군, 대학생 자작자동차·e-모빌리티 경진대회

영광군은 10일 “오는 27-29일(사)한국자동차공학회와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10월4일부터 6일까지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를 영광 대마산단 내 e-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영광군,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경진대회는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53개팀 1천500여명, e-모빌리티 경진대회 68개팀, 1천900여명이 참여해 약 2주 동안 대마산단에서 가속, 슬라럼 등 오토크로스-집카나 경기, 내구레이스, 스키드

패드 경기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27-29일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와 10월4-6일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방문해 활기를 띠고 이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대된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대학생들이 보여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은 지역사회와 미래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발전된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농 일손 부족 해소”...무안,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개소

26억 투입 운남분소 신축 이전 57종 148대 농기계 보유

무안군은 “최근 운남면에 신축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산 무안군수,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과 농업 관련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는 농협 창고를 임대해 운영하던 운남분소를 신축 이전했으며 총사업비 26억원이 투입돼 부지 5천143㎡에 보관창고 492㎡와 사무실 133㎡, 농기계 교육 실습장 등을 갖추고 양과정식기, 퇴비살포기 등 57종 148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망은



무안군이 최근 김산 무안군수,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과 농업 관련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남면에 신축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무안군 제공)

면과 운남면 농민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운남면의 한 농가는 “기존 시설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농사에 도움을 줬는데, 더 넓고 더 좋은 시설에서 임대 서비스를 받게 돼 기쁘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김산 군수는 “매년 농기계 임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로 분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부족한 일손에도

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조성해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강진-목포대 “지역소멸 극복 공동 협력”

옛 성화대 활용 스타트업 벤처타운 조성

강진군과 국립목포대가 강진군 성천면에 있는 옛 성화대를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목포대가 글로벌대학30에 본지정 됨에 따라 옛 성화대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대학30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논의를 통해 협력,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옛 성화대를 활용한 직주락 형태의 스타트업 벤처타운 조성 ▲남악 캠퍼스 스타트업 기업 강진군 입주 ▲목포대 창업진흥단 연계 기업 유치 ▲옛 성화대에 목포대 스타트업 Lab 설치 등을 논의했다.



국립목포대학교 업무협약식 (2024. 7. 10) 성사된 후 양 기관은 10일 강진군에...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글로벌대학 30사업을 발판 삼아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특화센터 유치 및 소프트웨어 지원 등을 통해 강진의 옛 성화대에 윈스톱 정주형 스타트업 벤처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강진군은 4차산업 기반인 AI 모빌리티, UAM(도상형 항공교통), IT/SW 개발, 실감형 콘텐츠 연계 기업 유치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디지털 혁신 체 협력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영기업과의 협약을 진행 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목포대 글로벌대학30사업과 옛 성화대를 4차산업 기반의 신성장 산업을 추진하는 센터로 조성하는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26년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옛 성화대 활성화 사업의 성공 가도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입주기업 유치 및 민간 투자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영예

작가와와 만남 등 독서 문화 활성화 노력 인정

완도군이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주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는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책의 소중함과 책 읽는 즐거움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는 우수 기관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최근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완도군은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까지 수상하며 독서 문화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또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완도군은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작가와의 만남,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독서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특히 독서 한마음 대회 개최와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 이전,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완도군 소안 사립학교 작은 도서관이 제9회 책 읽는 작은 도서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보길도 윤선도 작은 도서관이 대상에 수상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완도군 내 작은 도서관들이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독서가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치유 도시답게 독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독서 문화 기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